

2024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해외 95개 팀 1,671명, 국내 168개 팀 4,254명 참가 예정
해외 2000선교, 국내 공동체 총무에게 아웃리치 계획서 제출



사진은 지난해 푸른누리공동체 아웃리치.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시작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95개 팀 1,671명, 국내 168개 팀 4,254명이 참가한다(6월 13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네팔, 일본,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로 떠난다. 성인공동체 12개 팀 260명, 대학청년부 57개 팀 943명, 차세대 26개 팀 468명이 참가한다. 선교지 교회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시설보수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성인공동체 31개 팀 1,303명, 대학청년부 124개 팀 2,644명, 차세대 13개 팀 307명이 참가한다.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노방전도 등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위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소속 공동체 총무, 해외 아웃리치팀은 2000선교 본부에 아웃리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온누리신문〉에서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은혜와 감동을 온 누리와 함께 나눈다. 생생한 아웃리치 사진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한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미디어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7

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 영상을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 하면 된다. 시상도 한다. 1등 50만 원(1팀), 2등(30만 원, 3팀), 3등 10만 원(5팀) 상금을 준다. 위트상(3팀), 은혜상(3팀)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준다. 입상한 영상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과 페이스북(@OnnuriCommunityChurch)에 게시한다.

문의:

해외- 02-3215-3211(2000선교본부)

국내- 각 공동체 총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위한 〈최고의 행복〉 집중 강의!

6월 18일 오후 8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전도콜센터에서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 집중 강의를 한다. 6월 18일(화) 오후 8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가 강의

한다. 이번 집중 강의 참가자들에게는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1인당 1권 제공한다. 참가대상은 각 공동체 대표장로, 총무, 전도사역자 및 아웃리치 관계자다. 일반 성도들은 선착순 신청하면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참가신청은 구글폼(하단 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각 공동체에 전달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도콜센터에 신청해도 된다(02-3215-3377).

문의: 010-5219-8707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2024 온누리 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6월 15일(토) 용산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12일(금) 성북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 〈종강예배 일정표 12면〉.

올해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1월 6~7일, 13~14일 선교 헌금 작정, 22~24일 목회사관학교,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3월 1일 순장영성 수련회, 25~29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5월 4~5일 대중교통 이용 주일, 13일 자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15~16일 리브소나타 ‘효고’, 6월 12~14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 등을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7~8월 아웃리치, 8월 2일故 하용조 목사 13주기 추모예배, 24~25일 사르트 프로젝트, 9월 15~17일 추석 하비스트 집회, 22~28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 대회, 11월 30일 임직예배, 12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등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나님의 용사, 다윗!

7~8월 ‘2024 차세대 여름 캠프’

2024 차세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진행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내 캠퍼스 본당 및 외부, 파워웨이브(중고등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외부에서 캠프를 한다.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자라는땅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담아요’, ‘말씀을 따라요’를 주제로 QT와 성경 퀴즈,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는 ‘獨對(독대)’를 주제로 찬양집회, 강의, 기도회 등을 개최한다.

2024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교사강습회는 지난 6월 1일(토)부터 15일(토)까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이어졌다. 교사, 목회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제 강의, 찬양 율동 강의, 교재 강습회 등을 했다.

/ 홍하영 기자

화성M센터, 화재복구 공사 완료

화성M센터가 화재복구 공사를 끝마치고 지난 6월 9일(일) 복구 후 첫 예배를 드렸다. 목회자, 이주민, 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M센터에서 지난 4월 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예배실과 예배 장비, 물품 등이 손상되었다. 화성M센터 화재 소식을 전해지자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외국인예배, 이주민들이 화재복구 공사에 써달라며 2천 5백여 만 원을 후원했다(성도 2,100여 만 원, 지방M센터 및 외국인예배 200여 만 원, 이주민 160여 만 원).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담당)는 “어려움에 빠진 화성M센터를 위해 기도와 관심, 물질로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이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더 큰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 11:19~30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렵지 않게 “기독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네. 저는 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예배에 참여합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세 종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글쎄요. 매주 예배는 참여합니다만 ...” 말꼬리가 흐려진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 그렇습니다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대답으로 끝낼 수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된 분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평가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출현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성경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혹은 ‘성도들’, ‘형제들’ 혹은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당시 해룻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로디아누스’,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카이사리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언어와 문화, 습관과 양식을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는 처음에는 약간 비꼬는 말투 혹은 익살맞은 별명처럼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과정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세상 속에 표현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고 결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

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저들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성도들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로마제국에서 로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당시 로마제국의 대도시 대부분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민족이 모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역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교회에 베드로조차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대한 오해, 잘못된 선민의식, 율법에 갇혀 있고, 구약 역사에 고정되어 있으며, 유대 문화에 복음을 가두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루살렘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하루속히 복음이 확산해야 하는 시급성에 비해서는 예루살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견이 모두 사라지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예루살렘교회를 뛰어넘어 안디옥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됐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교회의 출현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 됨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의 중심지가 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 됨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흩어졌습니다(19절).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앙과 예배당 밖에서 신앙이 바뀌는 것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당 밖의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교회에 처음 핍박이 왔을 때는 왜 흩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존재했을 때,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됨의 정체성,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20-21절).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말씀을 전한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소수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미국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인교회로서만 존재하려고 할 때 위기가 옵니다. 다민족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한인들만 모이는 사회, 아프리카인만 모이는 사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만 모이는 사회를 표방하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종을 얼마나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지가 그리스도인 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교회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는 한식을 해먹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거의 예배에 육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을 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밥을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 그 냄새가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권사님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커피와 도넛으로 끝입니다. 드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소방서, 학교, 지역에서 “교회를 빌려서 회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이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소방서에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소방관이 “나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식 하나 안 해 먹었더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주민이 오고, 외국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만의 냄새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

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

만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자녀들이 국제결혼도 합니다. 사실 ‘국제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면 인종과 언어가 크게 제한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셨다’는 말씀이 19절이 아니라 20절 다음에 나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다음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집중할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품으려는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힐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느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

개척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중국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데, 어느 지도자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10여 명의 중국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모일 수가 없으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에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22~24절).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먼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

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5~26절).

바나바가 보여준 훌륭한 영적 지도력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돕도록 세운 일입니다. 바나바가 세우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사도행전> 무대에 들어서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 충성되게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여준 동역 덕분에 안디옥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함께 일하는 사람과 경쟁하고, 동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보여주었던 동역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 선교 중심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이나 흩어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의 믿음, 우리만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중심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4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옆드림**

용서와 간구, 그리고 예배의 옆드림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 3,600여 명 참석



용서와 간구, 예배의 옆드림.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에 참가한 마리아들이 쏟아낸 간증이 큰 은혜다.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이 지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양재온누리교회와 각 캠퍼스에서 막 올랐다. 순백의 마리아 3,6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첫날에는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합심기도회가 열렸

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용서의 옆드림'을 주제로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영혼에게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신다"면서 "용서의 옆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도 이어졌다. '타인을 향한 용서의 옆드림', '하나님께 대한 용서의 옆드림', '나라를 위한 용서의 옆드림'을 주제로

마리아들이 뜨겁게 부르짖었다. 전해옥 성도(양재온누리교회)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부정적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집회 둘째 날에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설교, 합심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이인호목사는 '미스바의 옆드림'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뤄졌다"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자 권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통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연합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집회 셋째 날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성도들이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다. 이한영 부총장(아신대) 설교, 합심기도회, 세리머니 등이 이어졌다. 이한영 부총장은 '탄식에서 예배로'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부총장은 "옆드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승화시켜 주신다"면서 "옆드림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상주교회 성도들도 집회에 참석해 더욱 뜻깊었다. 김영미 권사(상주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마리아행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김다애, 홍하영 기자

마리아들의 고백 그리고 다짐

나라를 위한 옆드림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은 한마디로 수많은 위기 앞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행전' 같은 기도운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옆드림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마리아행전은 말씀을 회복하고, 옆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상이 세워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이끌리게 되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9월 로잔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선교운동이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숙현 집사
(S브릿지공동체)

회복을 위한 옆드림

저는 이번 마리아행전 '옆드림' 봉사자로 섬겼습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행전을 준비하면서 은혜는 준비하는 과정과 중보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엎드릴 때 옆 사람도 엎드리게 되고,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옆 사람도 함께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배웠습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에서 저로 인해 옆 사람이 회복되고, 옆 사람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곤 집사
(동대문중앙공동체)

갈망을 위한 옆드림

마리아행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저는 4기 암환자입니다. 오늘 CT를 찍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리아행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서산온누리교회에서 참여한 마리아행전 집회도 정말 좋았지만, 모든 캠퍼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까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에서 그동안 저의 기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갈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편은정 성도
(서산온누리교회)

◆ 6월 12일 첫째 날

용서의 앞드림

〈마태복음〉 6장 12~15절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의 앞드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지는 자가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앞드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앞드림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앞드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당한 사람이 용서할 때 앞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드림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앞드리지 않고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 심판자라는 것을 인

정하고, 앞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앞드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12~15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피해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마 5:43-45). 하나님을 가장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

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위해 우리는 매일 앞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앞드리고, 십자가 앞에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는 영혼에게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용서의 앞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마리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6월 13일 둘째 날

미스바의 앞드림

〈사무엘상〉 7장 5~11절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마리아행전 둘째 날 주제 ‘간구의 앞드림’을 묵상하면서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이스라엘이 민족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미스바 기도운동을 주도한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 선지자, 둘째 제

사장, 셋째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우리의 구원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압제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엘리야, 다윗 등 믿음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드려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

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셋째, 그리스도 기도의 통치, 즉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로 다스렸습니다(삼상 7:6). 여기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삼상 7:13).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삼상 7:1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로 가정과 교회,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앞드려 기도하십시오.

◆ 6월 14일 셋째 날

탄식에서 예배로

〈시편〉 150편 1~6절

이한영 부총장(아신대학교)

이번 마리아행전 주제 말씀이 〈시편〉 95편 6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문장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입니다. 앞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목적,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에는 고백, 원망, 불평, 회개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숨김없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시편〉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부르짖고(시 119:145, 시 61:1, 시 77:1), 묵상하고(시 55:17), 질문하고(시 122:6), 구하는(시 119:76)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둘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앞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앞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과 요구를 관철시키

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 뜻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욕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교만과 편견,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 새롭고, 온전하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셋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빠짐없이 들어주신다면 행복할까요? 사탄은 인간의 욕구에 타락의 요소들을 은밀히 희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 때마다 무의식에 조금씩 교만과 오만이 쌓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앞드림의 기도 결과는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살펴보면, 탄식의 기도에서 점점

찬양과 예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욕구에 맞춰 있다면 신령과 진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왕관과 통치에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데 맞춰진다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후무한 변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신과 배반, 음란과 방탕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드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앞드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신본주의’

수년 전 나를 잘 따르던 두 명의 제자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권했다.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던 두 자매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 몇 번 가보더니 감사하게도 기독교와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몇 달이 지나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는 두 사람에게 무엇이 그 마음을 갖게 했는지 물었다. “찬양이 좋았다”, “청년부 활동이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고마웠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 와닿았다는 것이다. 특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봐라. 저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느냐”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눈물이 났다고 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많은 크리스천 친구와 성경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신화라고 생각했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 나와 교류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양 덕분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늘 듣던 찬양 한 소절이 내가 알던 모든 복잡한 생각을 압도하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때였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이 나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관계되는 순간 일어난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 부인(self denial)과 겸손의 도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기를 바라며, 신의 도움 없이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뜻과 운명을 지배하는 다

중심성은 흔들림 없는 진리이므로 인간 중심성이라는 개념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세상의 권력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오해다.’ 자신의 전적인 실패와 구원의 필요를 깨달은 이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했다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이양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본주의에 저항감을 느끼게 한 일들의 실상은 하나님 중심성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 구조와 질서를 통제

는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포기를 단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며,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를 제한적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의미한다.

많은 현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물론 우리의 해석과 지적인 접근은 항상 정반합(正反合)을 전제한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정(正)의 개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받고 강력한 반(反)에 부딪혀 새롭게 정비된 더 나은 지식의 합(合)에 이르는 발전과정은 지식이 불완전한 도구일 뿐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지식의 발전과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세상 간의 다리 놓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할 윤리적 기준과 학문적 발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성과 지성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은 따뜻한 신본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상원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강남C공동체)

“하나님과 세상 간의 다리 놓기를 시도해야 한다.”

른 존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는 서로 반목하는 태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자질들은 공유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등하기만 한다고 보는 관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일으킨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을 굴복시킴으로써 또는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심으로써 자신의 신 뒀을 확인하는 인간 의존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하고자 한 그릇된 적용 때문이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존재와 사건을 해석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신본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강요하는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독생자의 죽음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기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양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이토록 혼란스러운 문화적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가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모범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1831~1879)’이다. 대부분 사람이 이름을 들 수 있는 물리학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아이작 뉴턴’ 정도다. 하지만 20세기 물리학의 중요한 발견들의 기초가 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1831년 6월 13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맥스웰은 16살에 에든버러대학교에 입학했다. 학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편광 프리즘과 젤라틴을 사용해서 자기 구조화된 화학, 전기, 자기 장치를 연구하는 데 여가를 사용했다. 이 연구는 그가 18세에 완성한 두 개의 과학 논문으로 이어졌다. 1850년 맥스웰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받은 그는 복음주의 장로교 신자로 평생을 살았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1854년에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고, 1855년 트리니티대학의 특별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애버딘의 마셜 대학

의 교수직을 수락했다. 그곳에서 토성의 고리가 고체도, 액체도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킹스 칼리지 캠브리지의 애덤스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 보이저호는 토성을 근접 통과해서 이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당시 그의 논문은 역사상 물리학에 수학을 적용한 가장 좋은 예로 여겨졌다.

1860년 맥스웰은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정착했다가 1871년 케임브리지로 자리를 옮겼다. 맥스웰의 연구가 물리학 분야를 바꾸었다. 예를 들어 그는 빛이 전자기 복사의 한 형태임을 보여 주었고, 전자기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을 고안했다. 그 연구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닦은 네 개의 편미분 방정식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는 또한 1861년 최초의 광속 컬러 사진을 제작했고, 오늘날 차원 해석(dimensional analysis)으로 알려진 물리량을 정의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맥스웰의 신앙은 그가 과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기에 동시대인과 갈등을 유발했다.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철학이

실증주의였기 때문이다. 실증주의는 지식의 유일한 기초는 경험적 관찰과 그 관찰에 대한 논리적, 수학적 분석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직관, 자기 성찰, 계시, 전통이 진리를 발견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기적과 신의 개입에 관한 주장과 함께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맥스웰은 실증주의를 환원주의적이고, 주제넘은 것으로 치부했다. 그는 성경을 굳게 믿었고, 그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기독교 신앙에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맥스웰에게 과학이란 매우 종교적인 노력이었다. 그가 매일 반복한 기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복된 말씀을 구속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소서.”

맥스웰은 과학을 <창세기> 1장에서의 문화

명령과 복음과의 연관성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했다. 1875년 그가 한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그들의 존재가 할 수 있는 한 광범위해지도록 과학을 연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맥스웰은 위암으로 48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그의 연구를 아인슈타인과 뉴턴과 견준다. 맥스웰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천국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마음을 가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원문: breakpoint(20230104)

/ 글렌 선사인(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작가),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 세계관센터 대표)

생명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

1.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3. 의사조력 '자살'을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할 수 있나
4. 안락사 논의 전 선결과제 - 호스피스 완화의료 5.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엄격한 기준 무너지고, 너무 쉽게 자살을 결정하게 된다!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부소장)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해 조언도 해주지 않겠다”는 단언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건강을 소중한 이상으로 추구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플라톤적 이상이 지배하는 시절이었다. 질병은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 만약 난치병이 있으면 완전한 건강의 회복이 보장되지 않기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흔했다. 스토아 학파 창시자 제논은 손가락이 부러진 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병든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없었다. 병든 자들은 의사에게 독극물을 처방받아 안락사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었다. 의사 역시 죽음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히포크라테스는 누구의 요청이라도 치사약은 처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당대 주류 철학을 거스르는 파격적 도전이었다. 이 선서를 따르는 의사들은 안락사를 피했다. 이후 기독교의 등장으로 안락사가 더는 용인되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라는 인식과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마 16:26)이 건강이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생명존중 사상은 질병을 정복해 가는 의학 발전에 힘입어 현대까지 주류 사상으로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탈종교적 현상이 커지면서 다시 안락사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사상도 자리나기 시작했다. 생명은 창조주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 의지대로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세기 이르러는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철학적 시선으로 본다면 현대의 죽음 이슈는 오히려 고대로 퇴보한 듯하다.

끔찍한 ‘죽음’ 막는 최후 수단이
끔찍한 ‘삶’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세기 들어 국가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힘든 고통을 겪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시키는 것에

자살방조죄나 살인죄를 적용하던 것을 비(非)범죄화시킨 것이다.

비범죄화 역사는 스위스가 가장 오래되었다.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스위스는 형법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으면 자살방조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환자를 죽이는 약물 처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의료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기에 ‘의사’란 단어 없이 그냥 ‘조력자살’이라고 부른다. 실제적 의사조력자살 법률이 처음 제정된 곳은 1997년 미국의 오리건주다.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DC, 하와이, 메인, 몬타나, 뉴저지, 뉴멕시코, 버몬트, 워싱턴 등 11개 주가 합법화를 택했고,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해서 2024년 안락사법을 논의하고 있는 주가 18개에 달한다.

전 국가적으로 안락사를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는 2002년 네덜란드다. 그 이후 20여 년 동안 벨기에(2003), 룩셈부르크(2009), 콜롬비아(2015), 캐나다(2016), 이탈리아(2019), 뉴질랜드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이 완충적 절차 이후 결국 2002년 안락사 법안이 만들어졌다. 30여 년에 걸친 치열한 담론은 엄격한 조건에서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안락사가 진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락사는 통제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던 사회적 합의는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합법적 안락사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권리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밀려 점차 허물어졌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육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죽음의 권리를 요청하자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신적 원인으로는 자폐증이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고통, 사회생활에서의 대처를 어려워하는 일이나 극심한 외로움을 겪는 고

르는 “우리는 끔찍한 ‘죽음’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는데, 이제는 끔찍한 ‘삶’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없다”

캐나다는 네덜란드에 비하면 대략 14년 늦은 2016년 ‘Medical Assistance in Dying(MAiD)’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법을 시행했다. 자국민으로서 정신 질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 안락사를 요청하면 허용했다. 네덜란드보다 늦게 합법화되었지만, 캐나다는 무척 빠른 속도로 안락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불과 7년 만에 법률을 개정해서 ‘정신 질환이 없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2024년 3월부터는 거식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했다. 캐나다 의회의 임종의료지원위원회는 미성년자까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죽을 수 있도록 안락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안락사 권유를 너무 쉽게 여기는 부작용이 생겼다. 2022년 패럴림픽 캐나다 대표 출신이었던 고티에는 장애인을 위한 가정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요청하며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민원을 넣자 보훈처가 안락사를 권유했다. 2023년 캐나다의 한 병원은 자살 총동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유했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자살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쉽고 친절하게 내뱉는 사회가 된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까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다. 스위스에는 몇 개의 민간 조력자살 단체들이 있다.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디그니타스는 1998년 설립될 때 조력자살 조건으로 불치병, 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으나 정신 질환은 없는 상태의 올바른 판단력을 요구했다. 2011년 설립된 라이프 서클은 2021년 정신질환자를 조력자살 시키며 정신장애 환자의 안락사 허용을 이끌어냈다. 이후 2019년 설립된 페가소스는 건강상태를 묻지 않는다. 고통 입증 없이 조력자살을 원한다는 본인의 의사만 밝히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력자살 조건이 점차 쉬운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의사의 면담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살 캡슐 ‘사르코(Sarco)’가 개발되었다. 이를 만든 니츠게 박사는 죽는 과정의 비의료화를 목표로 오직 개인이 자기 죽음을 통제하게 하자고 주장한다. 어떤 나라든지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초기에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없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너무 쉽게 자살을 결정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계속).

“어떤 나라든지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초기에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없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너무 쉽게
자살을 결정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드(2020), 포르투갈(2020), 스페인(2021), 독일(2022), 오스트리아(2022) 등이 경쟁하듯 안락사를 용인하는 나라 대열에 들어섰다. 대한민국도 지난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발의했다.

안락사 합법화가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한 논의를 거쳤다. 1967년 21세 코마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이슈로 안락사 담론이 시작되었다. 1973년 Postma라는 의사가 뇌출혈로 장애를 입고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안락사시켜 기소되면서 논란이 더 거세졌다. 네덜란드 의사협회도 안락사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락사 사건이 점차 많아지면서 1981년 법원은 정당한 안락사를 위한 6가지 의무지침과 3단계 절차 의무를 마련했다. 1984년 95세 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를 무죄 판결했고, 의사협회도 더는 치료적 희망이 없는 고통 속의 환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1990년 사법부는 안락사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의사가 ‘특정 의무 조항’을 잘 지키며 안락사를 시행한 다음 신고하면 형사

통까지 포함 시켰다.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일을 중단하고, 조력자살을 택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2020년에는 자발적 요청을 증명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로 안락사 대상을 확대했다. 안락사를 원한다고 본인이 미리 의사를 밝혔다면 치매 증상이 깊어졌을 때 안락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2016년 치매 진단을 받은 여성이 사전의향서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하던 중 일어났다. 잠에서 깬 여성이 온몸으로 안락사 약물 투여를 거부했으나 의사는 가족들에게 환자를 붙잡고 있게 한 뒤 안락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되었다. 치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시점에 안락사를 여전히 자발적으로 원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의 자기 권리는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에게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2023년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12세 미만 연령의 어린이까지 안락사를 허용했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네덜란드의 안락사 현실에 대해 안락사 검토심의위원회의 의료윤리학자 테오부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2)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앞선 해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지난 신문에서 ‘첫째, 기본적인 성별 구분이 없어진다’, ‘둘째,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성관계와 동성애 관련 사건 사고를 학교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알아보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세 번째는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경우, 상담가를 통해 ‘탈(脫)동성애’를 하도록 도울 수 없다. ‘SB1172’ 법안으로 인해 18세 미만 학생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상담이 금지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크리

스천 상담가라고 하더라도 성정체성이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협 때문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탈동성애 상담을 하면 벌금과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공립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무분별한 성관계와 동성 성관계, 성전환용 호르몬 치료를 부추기는 교육을 받게 된다.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성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성적 쾌락이 자신의 권리라고 가르친다. 동성 성관계와 성전환을 부추기는 교육도 받는다. ‘SB107’, ‘AB2218’ 법안이 통과되면서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7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부모 몰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게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상

황이다. 어릴 때 맞는 호르몬 주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FDA는 테스토스테론 사용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가능성을 발표했다. 일부 연구는 성호르몬 주사로 심장 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 등을 발표했다.

다섯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젠더(Gender,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교육을 받게 된다. 여자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면 “너는 걸 모습만 여자고 속은 남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젠더의 다양성을 교육한다. 젠더 플레이(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된다는 교육)는 언제든지, 하루에 열 번도 젠더가 바뀔 수 있음을 말한다. 아이들은 내가 걸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라는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 이러

“이 세상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계속 통과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가 하나되어 악법을 막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한 생각은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동성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같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더 잘 소통이 되는 때다. 이때 동성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름다운 우정을 동성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여섯째, 성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가 아닌 학교 선생님, 학교 상담가,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교육한다. 자녀에 대해서 학교의 교육자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끊는 잘못된 현상이다.

일곱째, 미성년자에게 낙태를 권장하고, 부모 몰래 낙태하도록 장려한다. 현재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는

낙태 서비스를 학교나 의료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관과 연결해서 낙태 서비스를 부모 몰래 해주고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진통제 한 알도 줄 수 없는데, 낙태는 부모 몰래 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부모는 자녀가 낙태 수술을 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알리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1개 주만 미성년자 낙태 수술을 할 때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덟째, 소아성애도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쳐서 자녀들이 소아성애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한다. 미국의 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소아성애도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게 너의 취향이라면 존중한다는 악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다음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음세대의 몸과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계속 통과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악법을 막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부모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녀들을 영적 거장으로 일으키기를 소망한다(끝).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6편 동성애&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6월 10~11일 본문



1.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성도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벧전 5:8-10)

- ① 온전하게 하신다 ② 굳건히 세우신다
③ 피하게 하신다 ④ 강하게 하신다

2.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벧후 1:4-7).

- ① 사랑 ② 인내 ③ 덕 ④ 질투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이닝키즈를 마치며!

“말씀 전하는 용감한 사람 될 수 있다!”

처음 사이닝키즈(말씀암송학교)를 했을 때는 여섯 살이었다. ‘내가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신기하게 말씀이 다 외워졌다. 그래서 말씀 외우기가 재미있었다. 내가 외우니까 동생도 따라 외웠다. 할아버지가 말씀 외워보라고 하셔서 외웠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여섯 살 때는 엄마랑 사이닝키즈에 와서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 외우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일곱 살 때는 아빠랑 사이닝키즈에 왔는데 아빠가 퇴근이 늦어서 말씀 외우기를 많이 못 해주셨다. 그래도 엄마가 퇴근하 시기를 기다렸다가 말씀을 외웠다. 매일 손가

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3번, 5번, 10번 한 적도 있다.

암송일기를 쓰면서 엄마가 “다인아, 여기서 제일 좋은 구절은 어떤 거야? 묵상해볼까?”라고 말씀하셨다. 매일 다른 말씀 구절을 좋아하게 되고, 외울 수 있었다. 모르는 단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말씀을 외웠다.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이 제일 좋다. 그중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문장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라서 절대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닝키즈를 하면서 말씀이 외워지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친다. 말씀을 외울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다. 성경책은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얇은 종이가 엄청 많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이닝키즈를 다녔으면 좋겠다. 사이닝키즈에 오면 말씀이 외워지고,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심다인 어린이
(부천온누리교회
예편)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농어촌선교팀이 존재하는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에



김우호 장로
(농어촌선교팀, 용산공동체 대표장로)

농어촌선교팀은 사회선교본부 소속 27개 팀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사역팀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농어촌선교팀의 사역을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농어촌선교팀의 사역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 보수 공사와 농사일을 돕는 차원이 아니다. 교회가 개인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돕는 사역이다. 국내 선교사역팀으로 오지 마을 목회자를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중보기도로 힘을 보탬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원(선교비 지원, 시설 보수 지원, 자녀 장학금, 아웃리치 공동체 연결 등)을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해 품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농어촌 목회자들의 사역 열정이 되살아나도록 위로와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국내 사회선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 다문화 선교와 차세대 복음화에 앞장서는 지역 교회를 찾아내 협력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이 함께하는 교회들

농어촌선교팀의 구체적 사역은 재정과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교회들을 직접 탐방해서 기도제목을 듣고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안도에 있는 맹선은혜교회는 낙도 섬마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며 동역하는 '농어촌선교팀'.

을에 자리한 곳인데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 조규필 목사는 섬마을 청소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 서울 나들이를 한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직접 봉고차를 운전해서 온누리교회와 두란노서원, CGN, 양화진 선교사 묘역 등을 방문한다. 청소년들에게 신앙심을 키워주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악기를 배우러 서울에 오기도 한다. 농어촌선교팀은 맹선은혜교회 청소년들이 목사님과 함께 서울 탐방을 오면 숙소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만나서 격려하고 축복해 준다. 또한 소안도에서 잡히는 멸치로 만든 액젓을 판매해서 교회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멸치액젓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도농행사를 개최해 멸치액젓을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또 다른 미자립교회를 도왔다.

공주소론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출석 성도가 10여 명에 불과한 미자립 교회다. 겨울이면 벽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교회 밖에 있는 화장실이 얼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성도들이 목사님 댁 화장실을 이용해

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 식당 겸 교육관은 물이 새서 천막을 덮어 사용 중인데 벽에 곰팡이가 피기도 했다. 최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동동부교회 디딤돌 봉사단과 협력해 공주소론교회 분당 보일러 공사와 화장실, 식당 시설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공주소론교회를 섬기는 이요한 목사님과 최미선 사모님이 정말 기뻐하셨다. 두 분의 사역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저와 아내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영혼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귀한 믿음의 동역자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만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

농어촌선교팀은 1년에 한 차례 2박 3일 일정으로 ‘농어촌교회 자립스쿨’을 연다.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섬과 힐링 그리고 자립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한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영과 육의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여름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와 시골교회를 연결하는 사역도 한다. 농어촌선교팀이 70여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 탐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지역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웃리치 대상 교회 연결 부탁이 자주 들어온다. 올해에도 벌써 여러 공동체와 시골교회가 연결되었다. 대학 청년부 국내 아웃리치 대상 교회 절반 가까이를 농어촌선교팀에서 추천해줬다.

올해 수원온누리교회에도 농어촌선교팀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인천, 대전, 평택, 부천 등 국내 모든 캠퍼스에 농어촌선교팀이 생겨서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아무리 출석 성도가 적은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에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오늘도 그곳에 존재해야 한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지 마을에도 교회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선교팀이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가 돕는 이유가 바로 그때문이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농어촌선교팀에 많이 보내주셔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충성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농어촌선교팀 정기모임:
매주 일요일 10:30~11:30 서빙고 지하 식당
문의: 손현석 팀장(010-3485-5893)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조규필 목사
(맹선은혜교회)

맹선은혜교회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낙도(落島) 소안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막막하던 소안도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제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만난 것은 제 목회 여정에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맹선은혜교회에게 온누리교회는 가족입니다. 매월 선교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선은혜교회에는 약 35명 정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임 이후 열심히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쳤더니 멋진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찬양팀을 조직했더니 찬양팀 아이들과 함께 서울 찬양집회에도 가보고 싶고, 문화체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마을 교회에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

서 모든 일정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서 4박 5일 동안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농어촌선교팀 팀원들이 늦은 저녁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받는 따뜻한 환대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소안도에 있는 교회 대부분 매년 5월이면 소안도 앞바다에서 잡은 대멸치와 신안 천일염을 사용해서 멸치액젓을 담그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숙성시켜 멸치액젓을 내려서 판매하는데, 초기자금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제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서 진행한 ‘농어촌교회 자립스쿨 세미나’에 소안도 지역 목회자들

과 함께 참석했는데, 감사하게도 소안도 지역 3개 교회(맹선은혜교회, 비자리교회, 소안소진교회) 멸치액젓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멸치액젓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들과 엔젤트리 선물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늘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합니다. 온누리교회와 맹선은혜교회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왕상 20:14)

질문은 겸손의 표현이다. 초기의 아합은 공동체 원로와 백성에게 묻고(20:7-9), 하나님께 묻는(20:14) 모습을 보인다. 아합이 겸손하게 물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다. 하지만 벤하닷(2세)이 굽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한다. 심지어 원로들에게 묻는 과정도 없다.

아합은 벤하닷을 ‘내(왕의) 형제’라 칭하고 병거에 올려 그의 권위를 치켜세운다. 벤하닷이 두 가지 제안을 한다. 벤하닷의 아버지(벤하닷 1세)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빼앗은 모든 성읍 반환을 약속한다. 또한 벤하닷 1세가 ‘사마리아 무역 시장’을 통해 유익을 얻었듯이, 아합에게 ‘다메섹 무역 시장’을 조성하라고 조언한다. 아합은 이 두 가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놓아준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처럼 질문이 사라지면, 즉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지혜의 공급이 중단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아합의 최후는 두 가지 이야기에 예견되어 있다. 먼저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치지 않아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은 벤하닷을, 친구는 아합을 상징

에서 아합을 기다렸다가 그가 지나갈 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지는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소인에게 포로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잘 감시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놓치면 네가 죽든지 무거운 벌금(은 1달란트)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러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아람 대신에 네 백성을 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들었으면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침울한 상태가 되어서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궁으로 돌아간다.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나뭇의 포도원’(왕상 21장)이다. 이 말씀에서는 이세벨과 함께 권력을 남용하는 아합을 통해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아합의 실수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혹시나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혹시나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한다. 벤하닷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아합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징조다. 실제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한다(대하 18:33-34, 왕상 22:34-38).

앞의 이야기에서 나온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때려달라고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하고 길가

데 소인이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여 정신없는 틈을 타서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의 결정이니 그 결정에 책임을 네가 져야 한다.”

이때 그가 급히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아합은 그가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그가 아합에게 말한다.

“너는 네가 죽여야 할 벤하닷을 놓아주었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6월 17~23일

〈오바다〉 1:1~21,
〈열왕기하〉 1:1~3:12



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묵상하자.

▶오바다 선지자(예언자)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포학을 일삼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던 에돔에게 하나님이 패망을 선포하신다. 에돔은 그와 화목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며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에돔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에돔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거룩한 산 시온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열왕기하〉는 삶과 죽음의

묵상포인트 1: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묵과하지 않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가 그의 신앙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떤지 살피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유일한 해답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자기 병이 나을지 바알세뵐에게 물으러 사지를 보낸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의 죽음을 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바알세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아하시야는 엘리야에게 두 차례 군사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내린 불이 군사를 태워 버린다. 세 번째 오십부장의 겸손한 간청으로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가서 그를 향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아하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스승이 지닌 능력의 감절을 구하는 엘리야의 믿음과 열정을 묵상하자.

▶엘리야는 엘리야를 따라 갈림길에서 벤엘로, 또 여리고로 간다. 소원이 무엇이냐는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감절로 구한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과 함께 승천하고, 홀로 남은 엘리야는 엘리야의 겹옷으로 요단강을 가른다. 엘리야는 엘리야를 이어 사역하며 많은 기적을 행한다. 그는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치며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한편 벤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은 저주받아 죽는다. 아합이 죽은 이후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요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과 연합해 모압을 치러 간다. 군대가 마실 물이 바다나는 곤경에 빠지자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이들의 고난과 불행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려움을 겪는 지체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하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나는 누구에게 묻는가? 모든 질문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하자. ▶아하시야가 세 번째로 보낸 오십부장은 겸손함으로 생명을 잃지 않았다. 내 생각을 고수하다가 실패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감절의 능력을 구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살마 자매를 위해서!

살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살마 자매는 모로코 출신으로 22살 청년입니다. 살마 자매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마 자매가 가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안산M센터 아람어공동체에서 살마 자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께 교제하면서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마 자매는 “지금은 집안의 상황이 어려워 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면서 가족을 도운 다음에 한국어와 다른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인 전문 회사를 방문하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살마 자매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안산M센터 아람어공동체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살마 자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안산M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살마 자매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살마 자매가 일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 정은유 자매(안산M센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돕는 배필과 좋은 배우자 준비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이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름답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짝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의 배우자는 한 사람이다. 배우자는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언약의 짝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짝은 밥해주고, 빨래해 주고, 돈 벌여주는 역할이 아니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짝일 것이다. 종종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구나!’ 확신이 드나요?”라고 질문한다. ‘이 사람이다!’는 확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의 삶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둘째,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신다.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부부로 만나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 안에 씻어주는 수준 높은 뜻이 있다. 그렇기에 결혼 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상

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안아주고, 품어준다면 언약의 짝이 아닐까?

보통 청년들이 배우자기도를 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한다. 그러나 질문한 청년처럼,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때 비로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 좋은 성품을 가진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바로 결혼 전에 가정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정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출발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결혼식은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시간을 정해서 미리 가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만남이 축복이지만,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만남의 통로가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넉크리스천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있다.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 열려 있으며, 신앙생활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관계의 필수 영양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해야 한다. 특정 영양분이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은 알약 등의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은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면역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몸에서 만들 수 없기에 외부에서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해줘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비타민에 비유할 수 있는 좋은 양약이 있다. 그 양약의 이름을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부 사이의 필수 영양소는 칭찬, 지지, 보상, 인정, 도움, 유쾌함 등이다.

칭찬은 상대방이 한 일이나 행동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다. 칭찬은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효과가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는 서로를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일들, 자신의 한계라고 느꼈던 장애물을 극복한 일 등에 대해 진심으로 상대를 높여준다. 얼마나 애썼는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친절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상대를 높여줘야 한다. 부부는 서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칭찬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표현하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칭찬해야 한다. 또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모호하게 칭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격려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당신은 마음이 착한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라는 식의 모호한 칭찬보다 구체

적인 상황과 일 등에 관해서 배우자와 가족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칭찬에 익숙한 부부와 부모가 있다. 칭찬보다 지적과 책망이 익숙한 집안 분위기도 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잖아!”, “넌 그게 문제야,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니?” 등의 표현으로 당사자가 했던 일이나 행동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높여주지 않고, 흠을 부각해서 지적한다. 이는 가족 관계와 성장을 방해한다. 칭찬할 때는 칭찬 받을 만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조금의 아쉬운 점을 굳이 꼬집어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을 해도 늘 조금 부족한 자신’이라는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온전히 상대방이 칭찬받을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막힘없이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칭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배우자에게 칭찬이 인색한지 아니면 충분히 표현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마음을 다해서 배우자를 높여주었던 칭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만일 칭찬에 인색했다면 당장 오늘 배우자를 칭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거리를 찾아보자.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보자. 부부와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견고해지고,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를 칭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칭찬이 이뤄져야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다. 위축된 자존

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도 한다. 스스로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칭찬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향한 지지와 격려는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다. 끊임없이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관계가 올바른 부부관계다. 반대로 깎아내리고, 늘 물가에 둔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관계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다. “난 당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난 늘 당신 편이에요”라는 말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늘 평가받고 경쟁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온전히 지지와 격려하고 받을 수 있다면,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지지와 격려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더욱 필요한 영양소다. 실패했을 때 누구나 좌절하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가벼운 시험에서 패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너희를 믿어”라는 격려와 지지를 듣는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게”, “괜찮아, 또 기회가 있을 거야”라는 식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

보상과 도움도 부부관계의 필수 영양소다. 애쓰며 수고한 배우자에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노력하고 애쓴 배우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나 적극적인 도움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 늘 섬김

받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섬김을 받고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건조해질 수 있다. 적절한 보상과 도움이 이뤄지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

유쾌함은 웃음과 미소, 온화한 표정과 눈빛으로 서로에게 표현된다. 밝은 분위기의 가정 환경에서는 부부의 자존감도,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표정 없이 부부가 서로를 마주하는 것 처럼 힘든 모습도 없다. 유쾌함은 전염성이 있다. 현실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밝음과 유쾌함을 먼저 배우자에게 표현한다면, 그 유쾌함이 부부의 분위기가 되고, 가족의 분위기가 된다. 만약 부부 사이에 유쾌함이라는 비타민을 상실했다면, 다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미소, 온화해진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하듯이, 부부 사이의 필수 영양소는 서로가 공급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부

부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위험으로 부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미국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CGN 미국지사 다큐멘터리 ‘The Final Project’

CGN 미국지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The Final Project’가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The Final Project’는 노숙인들의 삶과 그들을 돕는 사역 단체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지난 5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The Final Project’ 1~2편에서는 미국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로 돌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노숙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다뤘다. 그중에서 11살 어린이 노숙자 제이콥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이콥은 이민자인 엄마의 신분 및 경제력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길거리에서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 노숙자다. 제이콥의 사연을 본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이 후원 문의를 했고, CGN 미국지사에서도 모금 플랫폼을 마련했다. 제이콥 모자를 위한 후원금이 3주 만에 약 7천 달러가 모였다.

다큐멘터리 ‘The Final Project’ 3편과 4편에서는 노숙인을 돕는 사역 단체의 역할과 도움을 통해 노숙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미국 시간(서부)으로 6월 22일(3편)과 29일(4편) CGN America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문의: 02-3275-936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다큐멘터리 ‘The Final Project’ 포스터.

NGO 더멋진세상, 라오스 까시마을 마을화관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라오스 까시마을 화관을 건축했다. 까시마을은 라오스 산간지역에 있다. 한 부족이 10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여러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NGO 더멋진세상이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개발을 위한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마을화관을 건축했다. 교육 및 비전을 나누는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새골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1주차와 2주차는 토요일만, 3주차와 4주차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21일까지 아이스쿨(school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35만 원, 자녀 1명당 5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피플퍼즐’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9022-5228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6월 16일 15:3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D 김 신 방하은 이호선 정혜리 황성필	아주환 조재희 과천의왕 박은영 이중혁	서초B 강신애 김태룡 노다엘 윤여철 정아영	최은정
강남E 강혜옥 김순정 김영모	도곡 김희경 신지영 황진선	서초C 오영주 오종욱	
경기A 강영임 권이찬 김순아 문미숙	분당A 이순욱 이희창 정교철 최수희	서초D 강운주 이규민	푸른누리 권윤희 김대우
		송파B 김부영	

통일위원회, 탈북 다큐멘터리 상영

6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통일위원회에서 오는 6월 18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탈북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 (매들린 개빈 감독)를 상영한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다. 거짓의 유토피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실태, 그곳을 탈출하려는 일가족 5명의

위험한 여정,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생생하게 담았다. 상영시간은 총 115분이다. 남북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지난 6월 13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1차 상영회가 있었다. 성도, 사역단체, 목회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FA 23기 단기선교사 모집

6월 19일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FA 23기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6월 19일(수)까지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fa@timor.kr)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조건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9년 6월생 이하), 해외 거주 결정사유가 없는 세례교인이다.

구비 서류는 FA선교사지원서 1부, 추

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FA선교사지원서’와 ‘추천서’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FA 23기는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내에서 훈련하고,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주 동안 현장 사역을 할 예정이다.

문의: 070-4464-8105



“축구하며 이해와 화합 배워요!”

온누리M센터,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축구 교실 운영

온누리M센터에서 아프가니스탄 청소년을 위한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 축구팀 이름은 ‘아프간 스타 FC(Afg star FC)’다. 인천 유소년 축구팀 이성규 감독, FCA코리아(스포츠 선교) 김민국 간사 등이 재능기부로 섬기고 있다. 매주 인천 용담공원 축구장에서 훈련과 경기를 한다.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축구 교실에는 인천과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아프간 청소년 25명이 등록했다. 축구 교실이 다른 언어와 문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간 청소년들에게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FCA코리아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혼합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15일(토)	용산	두란노홀	오후 5시
6월 20일(목)	서빙고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0일(목)	서대문	한동홀	오후 6시
6월 21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6월 21일(금)	성동광진	시온홀	오후 6시
6월 21일(금)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1일(금)	산용산	한동홀	오후 6시
6월 21일(금)	광명	하안정로교회	오후 6시
6월 22일(토)	김포	양주 동신기도원	오전 10시
6월 22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4시
6월 25일(화)	노원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5일(화)	영등포구로	한동홀	오후 6시
6월 25일(화)	동작	비전홀	오후 6시
6월 27일(목)	관악금천	한동홀	오후 6시
6월 27일(목)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6월 27일(목)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7일(목)	여의도	여의도 정곡빌딩	오후 7시
6월 28일(금)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8일(금)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6월 28일(금)	천안사역	비전홀	오후 6시
6월 28일(금)	이촌	시온홀	오후 6시
6월 29일(토)	일산파주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6월 29일(토)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오후 5시
6월 29일(토)	강서	살렘전원교회	오후 1시
7월 2일(화)	이수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5일(금)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5일(금)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7월 5일(금)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7월 12일(금)	성북	강화로그스수양관	오후 7시 30분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16일(일)	푸른누리	도곡 기쁨홀	오후 1시 30분
6월 18일(화)	서초B	기쁨홀	오후 7시 30분
6월 20일(목)	강남A	화평홀	오후 8시
6월 20일(목)	서초C	드림홀	오후 8시
6월 21일(금)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6월 21일(금)	송파A	드림홀	오후 7시 30분
6월 21일(금)	강남E	도곡 기쁨홀	오후 7시 30분
6월 22일(토)	강남D	화평홀	오후 5시
6월 23일(일)	강남C	도곡 기쁨홀	오후 1시
6월 23일(일)	하모니	추후공지	추후공지
6월 25일(화)	서초D	화평홀	오후 8시
6월 25일(화)	도곡	온유홀	오후 7시
6월 25일(화)	분당A	드림홀	오후 7시
6월 27일(목)	송파B	화평홀	오후 7시 30분
6월 28일(금)	양재A	화평홀	오후 7시 30분
6월 28일(금)	서초A	온유홀	오후 7시
6월 29일(토)	양재B	화평홀	오후 5시
6월 29일(토)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5시
6월 29일(토)	경기A	안산M센터	오후 1시

캠퍼스			
6월 28일(금)	부천 믿음	본당	오후 8시
6월 29일(토)	부천 소망	다락방별 진행	다락방별 진행
6월 21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오후 7시 30분
6월 29일(토)	부천 화평	기쁨홀, 경천홀	오전 10시 30분
6월 29일(토)	부천 화평	비전홀	오후 4시
6월 27일(목)	수원 동누리	비전홀	오후 8시
6월 28일(금)	수원 서누리	본당	오후 8시
6월 28일(금)	수원 남누리	비전홀	오후 8시
6월 27일(목)	수원 북누리	본당	오후 8시
6월 28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8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1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0일(목)	대전 남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6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7일(목)	평택 믿음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8일(금)	평택 소망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1일(금)	인천 동누리	기쁨홀	오후 8시
7월 5일(금)	인천 서누리	본당	오후 8시
6월 21일(금)	인천 남누리	본당	오후 8시
6월 21일(금)	인천 북누리	소망홀	오후 8시
6월 28일(금)	강동 동서울A	사랑홀	오후 8시
6월 20일(목)	강동 동서울B	본당	오후 8시
6월 21일(금)	강동 동서울C	본당	오후 8시
6월 30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오후 2시
6월 28일(금)	영종	백향목홀	오후 7시 30분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2’

6월 22일과 29일 오전 10시 대학로 ‘이룸’

가정사역본부에서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2’를 개최한다. 이번 결혼문화세미나는 ‘하트싱그넬’을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22일(토)과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희망공간 ‘이룸’ (대학로 한성예술회관 3층, 혜화역 4번출구)에서 열린다. 크리스천 20대 청년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식사 포함).

‘LOVE DIVE2’는 청년들(20대)이 연애와 결혼을 소망하도록 돕고, 자연스런 만남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서진 목사 ‘이성 만남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이성 만남의 실제’, 강미향 목사, 조용호 교수 부부 ‘가정에 대한 소망’, 최종현 목사 ‘에너지 넘치는 동기부여’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9090-6746 / 김다애 기자



장로칼럼

내 삶의 자존감을 높여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자존심(自尊心, one's pride)’은 남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마음이고, 남들에게 업신여김당하지 않거나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자존감(自尊心, self-esteem)’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다. 긍정의 마음이자 힘이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자존심이 강하다. 경쟁 사회다 보니 남과 비교하게 되고, 성취욕이나 상실감을 겪는다. 시기와 질투, 욕심이 내면에 가득하다. 그러나 세월의 연륜과 함께 성숙해지면서 자존심 강한 고집불통에서 자존감 높은 미소쟁이로 바뀌게 된다. 자존감은 자기를 알고 내면의 변화로 행함에서 나온다. 행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하다. 자기계발의 기준을 남과 비교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해서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잠재력이 살아난다.

‘가시나무’를 노려한 하덕규는 한때 마약에 빠질 만큼 방황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다. 새로운 삶을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면의 죄를 짓고 있는 추악한 자신을 들여다보며 가시나무 덩굴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형상이 스치고 지나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 마음속 나’는 둘이 있다. 내가 되고 싶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나의 나’가 있고, 가족이나 사회가 바라는 ‘남의 나’가 있다. ‘나의 나’는 개인적 욕망이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 행동이다. ‘남의 나’는 주위 사람이

나 사회가 나에게 가지는 기대나 바람이고, 요구와 책임 등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소홀히 하게 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귀 기울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나’와 ‘남의 나’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나’를 더 찾는 것이 사람이다.

작가 박완서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어 좋다. 소설도 써지면 쓰고, 안 써져도 그만이라 좋다”고 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겸족(跽足)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넉넉해서 만족하다는 뜻이다. 겸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겸족하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겸족하게 할 수는 없다. ‘겸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마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겸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족한 상태다. 겸족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겸족함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겸족은 성장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존감 높은 겸족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삶의 가치와 목적이 명확하고, 자신과 소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긍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자존감으로 삶의 무게에도 지혜를 얻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3:4).

권사칼럼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황옥화 권사
(서빙고 이웃사랑팀)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독거 어르신들을 만난다.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

사실 나도 독거노인이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부르니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도 이웃사랑팀이 만나는 어르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홀로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래서 매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다. 어느새 친구로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노년에 더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몇 주 전, 이웃사랑팀에서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개최했다.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효창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50가정을 봉사자들이 찾아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사였다. 사역팀에서 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어르신들께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봉사자들이 사비를 보태 맛있고 근사한 식당을 찾았다. 부모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듯 정성을 다하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내가 괜히 뿌듯하고 고마웠다.

우리 팀이 섬기는 어르신은 치매가 있는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중국에서 온 동포 할머니 등이다. 각자 사정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갈비탕 한 그릇을 대접

하기로 했다. 원래는 식당에 다 같이 모셔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로 밖에서 뭉치가 어려웠다. 그래서 갈비탕을 하나씩 포장해서 각자 집으로 가져다드렸다. 할머니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된 음식을 받고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주 작은 섬김에도 큰 감동과 감사를 표현해서서 갈 때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갈 때마다 이야기 더 하고 가라며 못 가게 붙잡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웃사랑팀의 사역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 작은 섬김으로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외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이웃사랑팀의 사역인 것 같다.

이 귀한 이웃사랑팀 사역에도 단점(?)이 있다. 이별의 아픔이다. 이웃사랑팀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어르신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다. 아무래도 섬김의 대상이 노인들이다 보니 다른 대상자들보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많은 편이다. 그중에도 끝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떠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만나는 어르신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쓴다. 남은 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많아질수록 손에 쥐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이 많다. 하나둘 비워내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게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남은 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도한다. 더는 외롭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란다. 부디 더 많은 어르신께 복음이 닿도록,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지워지도록 기도와 관심, 동참이 필요하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부천온누리교회)

《열왕기상》 19장 11~21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다. 지나친 열심과 헌신으로 사역하느라 앞뒤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패닉이 왔다.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마저 등장하면서 몰아치는 감정의 폭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

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왕상 19:14).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7천 용사가 있음을 알려주셨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끈기가 있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전국 은행에 적금 들어 놓자’고 결단하고, ‘QT적금’을 시작한 지 벌써 3년하고 247일 되었다. 분명한 것은 나 혼자 했다면 6개월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QT적금’을 함께 시작한 성도들, 개인의 큐티를 나눠준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QT적금’의 장점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

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큐티를 나누면서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생각하며 중보기도도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천군 기산면 월기리에 계시는 류하식 어르신에게 복음의 전달자들이 찾아가다. 병상에 누워계시는 어르신께 책〈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전달했다. 그 어르신이 침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를 뒤 어르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슬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감격했다. 그 어르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어르신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거센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다. 바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

다. 십자가 위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번 여름 부천온누리교회 희락공동체가 대만 아웃리치를 간다. 여름휴가 때는 ‘Way-Maker’ 아이들과 말레이시아 비전트립도 갈 예정이다. 숲속에 구운 떡 한 덩이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모든 선교 여정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선교지에서 만날 이들에게 구운 떡 한 덩이에 복음을 담아 나눠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팀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임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렌파스, 타고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임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필리핀 의료선교 약사, 간호사 모임
일시: 7월 4일~8일
장소: 필리핀 보홀섬
문의: 010-4369-1211

브릿지33+ 예배팀 모임
분야: 메인 건반
사례비: 협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온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온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새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알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재승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명배 김오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은재 김재서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팔 김태용 김태안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온 박성배 박성철 박전중
박형준 배현삼 백승주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준아 유현목 윤희리아 이찬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한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진민기 최대용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중희
하원희 황진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호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정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강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온 衴嶸峯
이민영 이광은 박씨마 백승준
서영철 峴峴峴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스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장광석 정육진 정요한 제인랑
존콰이 최정현 최정현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애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모데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마리
김현실 김홍주 김예달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홍미 나가노
박시도 박시도 문진영 박성훈
박미애 박세연 박유진 박은혁
박요한 박용아 방예린 방예린
서해진 손우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루택 양현도 염경덕
박의락 방예린 오예원 유승희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일 이등준 이미진 이민규
이선혜 이소라 이시호라 나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만규
이창모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장미연 장민영
정상원 정성민 정영영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운식 조준기 최규중
주승환 차선일 최강호 최은영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근
홍세라 홍슬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감의선
강인희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하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강경선 강광선 강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병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대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성준 김상인
김 장 김 웅 김용배 김원중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준
김재욱 김재일 김중진 김중성
김종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홍실 문현하 박 공 박병익
박성배 박상승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박홍근 배 문 배남진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박병선

서정열 서진봉 서찬교 성장섭
순환기 송만식 송영배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홍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상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상연 우광범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지훈 유석우 윤영진 윤영선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자 이기중 이기섭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상철 이영경 이응하
이우곤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경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관영 정대성 정경태 정대용
정도원 정문규 정병규 정보원
정승풍 정영원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현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중
정희원 조항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민 최도성 최희관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주 한백진 한영희
한종대 한창적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조종일
홍기범 홍태표 홍범식 홍중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부순 강상훈
강인규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곽병철 곽진성 곽은습 곽오현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성규 김성종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국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국 김정철 김진호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영 김정민 김정훈 김준영
김종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학 김지현
김지훈 김효구 김희준 김희민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중 김화선 김화선
김하수 김하수 김희준 김희민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용환 남희준 라성원 류기범
명연찬 문생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원 박명균 박준규
박명물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규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한
박 현 박학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담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서광재 서두명
송기철 송기태 송정대 송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순 심갑섭 심현보 심효우
심하은 안동현 안상현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준경
양총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철일 이성신 이신준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현규 이현식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재남 임태배
임오열 임규찬 장경문 장경식
정영식 정영기 정영기 정영주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성순
정현식 정현주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국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석 최영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창식 한필규
함일식 함정철 하 경 허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승우 황병현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 명예장로

김승국 박동순 박용원 박찬규
이승규 이윤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환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현 채수삼 최창길 홍순직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峴峴峴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지수 최대화 최원호 최중훈
추교병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범우 김범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희정 남윤창 김혜경
김병준 김희정 남윤창 김혜경
박해준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의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유지현 이미선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의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정희희 채미현 최경영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신입회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6/7(금) 송파B 박봉관 집사 모친상 고 서금란

6/8(토) 강남C 박영희 성도 시모상 고 이상무

6/8(토) 동대문중앙 이연미 성도 형제상 고 이철호

6/9(주일) 서초C 정승연 성도 시부상 고 장병태

6/10(월) 영등포구로 김동희 성도 모친상 고 김예순

6/11(화) 마포 임영애 권사 모친상 고 박찬순

6/11(화) 양천 전현경 집사 부친상, 황신규 집사 방부상

고 전광철

6/11(화) 분당B 임승호 집사 모친상 고 박찬순

6/12(수) 강남B 성지혜 성도 부친상 고 성순기

6/13(목) 강남A 유하워드 성도 부친상 고 유석호

6/13(목) 서빙고온누리 권은주 사모 모친상, 이기훈 목사

빙모상 고 정행자

6/13(목) 양지온누리 관리팀 신용현 대리 빙모상 고 이인욱

6/14(금) 강촌 고 하대선 집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크리스천 엄마들을 위한 힐링 버라이어티

크리스천 슈퍼맘



MC 이성미 김효진 장재기 박지현

@gt1jc2****

해외에서 선교에 육아까지.
모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divine*****

세상의 엄마들이
치유받는 방송되기를 기도합니다.

@yulkang*****

너무 공감가서 눈물 흘리며 봤네요

@xt5rs4****

이렇게 건강한 프로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hamji****

사모님, 삶을 나눠주셔서 은혜되고
힘이 되네요. 감사해요.

슈퍼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풍당, CGN** 에서 만나보세요

크리스천 슈퍼맘 편수 안내



1편 엄마,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슈퍼맘!



2편 홀로 육아의 최고봉,
해외 선교지 육아



3편 워킹맘의 하루는 출근
무한 반복



4편 초중고 4남매 다둥이맘



5편 개척교회 사모맘



6편 다음 세대를 위한
엄마들의 신앙 고민



7편 문화 차이를 초월하는
다문화 슈퍼맘



풍당 바로가기